

왕의 수라상은 12첩일까? ... 쉽게 풀어 쓴 궁중음식 보고서

비야흐로 음식의 시대다. TV에서는 다양한 음식 방송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개인 미디어에서도 '먹방'과 '룩방'이 대세다. '맛집 탐방'은 유명 인사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시대적 변화에 한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려는 젊은 요리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더해질수록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점차 우리의 고유 정체성이 한식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식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한식을 '한식'이라 일컫을 수 있을까?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를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책은 궁인들이 기록한 일종의 식단표인 '음식발기'(飮食發記)를 토대로 5개의 왕실 상차림을 되살렸다.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가 펴낸 '조선 왕실의 밥상'은 전통 한식에 관한 보고서다. 지난 30여 년간 음식 문화를 공부해온 저자는 전통 조리법을 배우면서 한식 문화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저자가 한식을 주제로 삼은 것은 한식이 문화역사라는 인식에서 연유한다. 종가 음식과 사찰 음식, 향토 음식, 왕실 음식 등 이어가야 할 한식의 종류도 많고 깊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음식발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선 왕실에서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물품, 수량, 인물 등을 기록한 고문서다. 넓게는 진찬이나 진연 혹은 제사, 생신, 갈례, 진지, 차례 등에 차리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조선 왕실의 밥상

정혜경 지음

는 음식 목록이나 참석자의 직책과 그들에게 내린 음식상의 종류 등을 적은 문건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700~800여 건 남아 있다. 그 중 음식발기가 200여 건에 이른다.

저자는 조선 왕실 음식의 철학은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고 설명한다. 한식의 우수성이나 건강성의 논리에는 이 같은 음식 철학이 담겨 있다. 특히 한류 문화를 견인했던 드라마 '대장금'은 한국 궁중 음식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무엇보다 '약식동원'의 사상을 잘 구현했다.

약식동원은 왕실 음식의 식재료와 조리법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의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세조는 '식치(食治)'를 강조했다. 말 그대로 식치란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의미다. 세조는 "입에 달면 기운이 편해지고 먹기에 거북하면 괴로운 것이다. 음식에도 차



궁중의례 고문서 '음식발기(發記)' 재해석 통해 5개 왕실 상차림 되살려

한식 우수성·건강성 이면에는 약식동원(藥食同原) 철학 담겨

왕실 점심상인 주(晝)다례는 수라 없고 목면으로 차려진 면상차림

고 더운 것이 있어서 잘 가려 조리해야 하며 지나치게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자는 식의(食禮)가 아니다"고 했다.

현재 왕의 수라상은 12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근거를 찾기 어렵다. '원행음묘정리의궤'에 따르면 수라상은 7기로 차려졌다. '첩'은 반상의 밥, 국, 조

치(찌개), 김치, 간장 등을 제외한 반찬 다섯가지를 말한다.

12첩 반상의 등장은 왕실 음식의 실체와는 상관 없이 당시 통용되던 반가의 9첩 반상과 차별되는 왕실 음식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차림으로 통용됐을 거라는 얘기다.

잔치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쌀이어서 차린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차림을 '고미' 혹은 '고배 상차림'이라고 한다.

현재의 돌상이나 회갑상, 혼례 등의 축하 상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고배 상차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 중 무용총의 '접객도'에도 등장한다.

왕실의 점심상차림인 주다례에 대한 부분도 흥미롭다. 주(晝)는 낮이라는 한자와 연관이 있다. 저자는 "수라 없고 목면으로 차려진 면상차림이다"며 "점심은 '낮것'이라 하여 왕실의 낮것상은 면상차림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조선 왕실에서 차리는 음식상은 상을 받는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왕과 왕족에게 올리는 진어상(進御上), 왕실에서 내리는 사찬상(賜膳上)이 그것이다. 문헌에는 왕실에서는 진어상 못지 않게 잔치 시에 손님에게 접대하는 사찬상을 중시했다고 나온다.

저자는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왕실 음식 문화와 비교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발기에 나오는 음식명으로 상차림을 제시하고 각 음식의 조리법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푸른역사·4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김수영연구회 지음

김수영 시인은 1921년에 태어나 1968년 세상을 떠났다. 2018년은 그가 타계한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다.

김수영 50주기를 기념해 시 해설집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가 발간됐다. 김수영연구회 회원 열네 명은 4년간 모두 170여 편의시를 분석했다. 김수영 연구회에는 문학평론가 김명인, 이영준 두 사람을 공동 대표로 고봉준, 권현형, 김승교, 남기택, 노혜경, 박수연, 오영진, 이경수, 이민호, 임동환, 전상기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4년 동안 작품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도가 높은 시 116편을 선정, 복수의 시를 분담해 해설을 썼다. 이를 토대로 합평회를 통해 글을 가다듬었다. 해설은 두 가지 원칙 아래 쓰였다.

첫째 우리말을 아는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을 썼다. 원고지 5매 내외의 짧은 분량의 글에는 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개념과 집필 배경을 중심으로 명료한 풀이를 담았다. 각주와 인용도 최소화해 가능한 한 넓은 독자층이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데 방점을 뒀다.

둘째 합평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정보만을 언급했다. 해설자의 독자적 해석과 주관적 가치 평가보다 그동안 선행됐은 김수영론에 기반한 내용을 먼저 고려했다.

앞으로 3년 후면 김수영 탄생 100주년이 된다. 연구회는 세계 문학 속의 김수영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그의 시가 우리말을 아는 모든 분들께 문턱 낮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음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미키스

최정란 지음

"몇 번이나 이 생애 더 와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저 혼자서 빛도 못 내는 초록별, 어딘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별, 그래도 최선을 다해 꽃 피우는 이 가련한 별을"

최정란 시인의 '시산맥 기획시선'으로 시집 '장미키스'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에는 일상에서 시간을 대하는 시인의 심상이 형상화돼 있다. 시인은 현실 너머의 이상이나 초월의 세계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김윤정 평론가의 표현대로 시인에게 시간은 "삶의 성숙"이며 "작업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포도가 익을 무렵/ 협계가 구월을 타고 국경역에 가볼까// 얼마나 속이 탔기에 이렇게 깊이/ 검은 맛이 나는 것일까/ 이 달콤한 혀의 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달경거리며/ 땀별철로를 달려온 것일까// 더 깎아낼 하나의 모서리도 허락하지 않는/ 압축, / 한 자리에 매달리기 위해/ 각이란 각은 모두 안으로 들여놓은 절제, / 어느 날이 모자라도/ 향기는 완성되지 않는 것일까..."

위의 시 '내가 남긴 잔을 당신이 비울 때'는 "은은히 발효된 말의 외인"을 특유의 개성적인 시어로 표현한 것이다. '발효'란 결국 외적인 무언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일 터다.

김윤정 평론가는 "시인이 꿈꾸는 삶의 완성이란 일상의 시간을 벗어난 초월적인 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며 "그것은 여전히 일상의 시간 한가운데에서 부드러운 향을 해는 내면을 발견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평한다.

한편 최정란 시인은 요산장작기금을 받았으며 2016년 제7회 '시산맥작품상'을 수상했다.



〈시산맥·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

김미라 지음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안의 가풍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왔다.

인성과 교육이 무너진 지금, 성균관대에 출강하는 김미라 작가가 펴낸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던 조선의 교육법에 주목한다.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 선조들은 먼저 사람공부를 하고 나서 글공부를 하라고 가르쳤다.

책에는 조선시대 아이들이 배웠던 '격몽요결', 이덕무의 '사소절', 박세무의 '동몽선습' 등 8편의 동몽교재의 원문이 실어져 있다. 지은이는 책에 소개된 8편의 조선 동몽교재와 3편의 중국 아동교육서를 통해 사람답게 사는 방법과 바른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불어 사는 법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는다. 누구나 성공과 부를 삶의 최대 목표로 두고 매진한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능력이 뛰어나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수없이 보게 된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삼자경'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명구가 나온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남기길 금이 상자에 가득하게 하지만 나는 자식을 가르칠 오직 하나의 경이 있다. 부지런하면 성공을 하게 되고 놀기만 하면 유익함이 없으니 이를 경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위의 말에는 부모의 자녀교육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보아스·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양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